

## 2장

### 예수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



## 제 2 장

### “예수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 7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 13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18 흑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 23 이에 경에 이른 바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 IV. 초기 교회에 있었던 공통적인 위험들에 대한 경고 2:1~5:6

##### 1. 사람을 외모로 취함에 대하여 2:1~13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란 말은 전형적인 히브리 표현법(레 14:15)으로 본래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된 말이다. 즉 법정에서 재판장이 한편에만 유리하게 치우친 판결을 내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바로 이 말이 후에 ‘편견’, ‘차별대우’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막 12:14; 눅 20:21).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편견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행 10:34).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확신하며 마치 보배처럼 여긴다.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 곧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만큼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림으로 주의 영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라. 진리를 그대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행하도록 주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4장을

읽되, 특히 5-12절을 읽으라. 5장, 특히 13-20절을 읽으라. 이 장들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수효의 사람들에게 무효한 글과 같다. 나는 그대에게 특히 이 성경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을 지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연구해야 한다.

배틀크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 특별히 이 말씀에 유의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4-27). 현재 안전하게 서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뉘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목사125)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제 야고보는 편애의 위험을 드러내주는 실제적인 예증을 든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대표적인 악습이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하인들이었고 부자가 입교한 예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부자들은 대단히 환영을 받고 떠받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야고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이런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책망한 것이다. 본 절 중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이란 말은 고대 허식가들의 악습을 의미하고 있다. 즉 그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한 각 손가락마다 한 개 이상의 반지를 끼어 부(富)를 과시했다.

세상의 위대함과 부함을 지나치게 치켜올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경계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선하다면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며 만일 어떤 부자가 악하면 그의 부유함 때문에 덜 책망해서도 안 된다. 비록 초라한 의복을 걸쳤어도 겸손하고 선하며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과 똑같은 관심과 주목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부자들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등한히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종의 범죄이다. ... 의사들과 조력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계층의 사람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성도가 된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등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증언 550)

####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 니냐”

이 말씀에 대한 원문을 직역하면 ‘네가 차별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다. 즉 ‘그런 차별을 함에 있어서 너는 부당한 법칙으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는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다. 즉 너희는 스스로 만들어 낸 불의한 판단과 부패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너희는 은연중에 내적인 은혜보다 외적인 화려함을 도모하고 있는

며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죄의 흉측스러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이다. 그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별하는 일은 실제로 겸손과 다른 이에 대한 섬김에 관련된 주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지표가 된다. 이런 이중적 표준에 의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교인들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께 바치기로 고백한 충성을 실제로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자신들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낸다.

사도는 이렇게 구별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 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표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판단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는 그들의 판단은 주로 “세상” 에서 사용되는 표준인 잘못된 가치관에 기초되었다. 갈바리가 모든 자를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부자들의 영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만일 하나님의 빛을 존중히 여긴다면 — 하나님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계급도 인정되지 않으신다. 그분께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를 받을 만한 사업이다. 그것은 일의 종류나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 대상의 계급을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참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성실하고 열심이 있고 통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위나 부귀나 지식을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보시고 사람을 인치신다.” (복음사역자 328, 329p).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은 사람의 물질적 소유를 근거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종종 더 운택한 자들에게 무시당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가난한 자들이 주로 차지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최초의 설교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눅 4:18,19) 하신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가 아닌가를 묻는 침례 요한의 물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 11:5)라는 말을 최고점으로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첫 번째 축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마 5:3)이라 말씀하신다. 누가(Luke) 역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 (눅 6:20)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택하시라”는 헬라어 ‘에클레고마이’ (eklegomai)(롬 8:33)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을 택하심을 강조한다. 즉 그분은 예수를 명상하며 신뢰하기를 삶의 습관으로 삼는 사람들을 택하신다(요 6:40). 하나님은 그분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들만을 그분께로 데려가실 것이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회의 형성에 “세상의 천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을 묘사하기 위해 ‘에클레스마이’를 사용한다(고전 1:26~28).



“**믿음에 부요하게**”란 믿음의 실천에 부요하게란 뜻으로 동일한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여기서의 “나라”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전에 수립된 계획, 곧 미래의 영광의 왕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마 25:34; 단 7:27). 그리스도인들은 후사일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 후사”이며 그런 영예가 주는 모든 특권도 얻는다(롬 8:17). 이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약 1:12)과 비교될 수 있다.

####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팔시 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렌스키’(Lenski)와 같은 학자는 이 구절의 부자를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종교적 부유층인 사두개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구절은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당시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올무를 씌워 법정에 서게 하였던 것이다. 물론 타락한 법정이 부자들의 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가난한 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부채 때문이었다. 초대교회 당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매우 극심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생활고 때문에 남들에게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무척 성행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옷깃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 재판정에 세웠던 것이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해 당시에는 ‘긴급체포’라는 고유용어도 있었다고 한다.

#### 7.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더 좋아하기를 바라는 그들이 너희의 주를 훼방한 바로 그 부유한 자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알려졌으며(행 11:26) 이 이름을 위해 그들이 고통당했다(행 5:41; 벘전 4:14~16).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들 “부자” 들에 의해 압제당하며 훼방을 당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증인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대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족의 한 사람이요 하늘 왕의 자녀이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약 2:7)을 더럽힐 한 마디의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 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

언제나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고, 충동에 의하여 결코 하지 말라. 그대의 성급한 본성을 온유와 친절로써 조화시키라. 가법고 경솔한 일에 빠지지 말라. 야비한 농담이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 그것들은 제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끔 사로잡혀야 한다. 생각을 거룩한 사물에 집중시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진실해질 것이다” (치료봉사 491p).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슈바이처의 이단관-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나?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기적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아니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부자” 들을 구별하는 것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건대 그들이 사랑의 율법을 이루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율법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보인 편애하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의의 완전한 표준이기 때문이다.

“범죄자”란 헬라어 ‘파라바타이’(parabatai), 곧 ‘참된 길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

## 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본문은 율법의 범위와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이 “최고한 법” 을 지키되 법 전체를 다 중요시 여기고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단지 한 곳을 부딪쳤을지라도 우리는 산산조각난다. 율법은 한 개의 핀이 쓰러지는 동안 나머지는 서 있는 열 개의 핀 세트가 아니다. 율법은 한 단위며, 그 단일체는 사랑이다. 한 가지라도 그것을 범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곧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R.C.H. Lenski).

가장 약한 연결 고리가 부실해서 끊어져 버리는 사슬처럼, 한 음표가 전체 화성을 망치는 것처럼, 어느 부위라도 문둥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처럼,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범한 자에는 전 율법의 완전성과 조화가 망가지는 것이다.

“**자유의 율법**” : 십계명에 참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 도 마침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요 12:48).

“죄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사람의 자아, 곧 사람의 참된 영예와 존엄성의 회복을 가져온다. 우리가 순종한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 이다” (소망 466p).

요약하자면, 사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매일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힘쓰라고 권면한다.

“**공홀을 행하지 ... 자랑하느니라**” : 본 절 중 공홀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은 공홀에는 행함이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홀은 고아와 과부

를 돌아보는 구제 행위와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도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법’ 이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게 된다.

첫째는, 율법, 구체적으로 말해서 십계명은 그 열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른 아홉 가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 조문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 곧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과 자비, 곧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자유의 율법이 사랑에 기초하듯이 심판도 그 사랑의 실천에 따라 정해진다.

**그 역사가 반복됨** —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사단은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시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유혹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거의 도달한 자들을 위하여 올무를 놓을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낼 것이다. 사단은 천한 정욕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더 고상한 능력에 복종시키지 아니한 자들, 육적인 비열한 욕정의 방종의 통로로 흘러가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자들을 자기의 유혹물을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다. 즉 방탕으로써 그들의 영혼들을 더럽히려고 결심하고 있다. 사단은 …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그의 대리자로서 편입시킬 수 있는 자들을 통해 그의 올무를 퍼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며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 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입이 논리

로 충만해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 사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의 흉악한 권세와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여 그들의 품성의 약점을 잡아 넘어뜨리게 한다. 그는 한 가지 점에 실족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과 이와 같이 하여 전 인류를 완전히 정복하여 장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영혼과 육체와 양심이 함께 멸망을 당한다. 만일 그가 의의 사자로서 큰 빛을 가진 자거나 혹은 주께서 진리의 사업에 당신의 특별한 일꾼으로 사용한 자라면 사단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되겠는가! 얼마나 그가 기뻐 날뛸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겠는가!” (재림신도의 가정 327p).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합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 기만이 될 것이다. 그는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 (약 2:10)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 데 동의함으로써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 (단 7:25)리라고 발표되어 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중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나 불순종이나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分離)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소망 763p).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한 계명이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는 다른 계명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과 충들을 빗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직 죄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마음은 섬기는 바에 따라 나누어진다. 거기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곧 하늘 정부의 율법을 반역하는 일이 있다.

…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러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

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한 가지 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재난의 수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유사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교훈은 그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는 자는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산상보훈 51p).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 이다(약 2:12).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었다. 예수께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입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써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생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도직을



**계승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소망 466p).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기만하고 압제할 수 있다. 그들은 과부와 아비 없는 아이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사단과 같은 증오심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궁핍을 행하지 아니” (약 2:13)한 자들에게는 “궁핍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래지 않아 그들은 온 땅의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와 심령에 가한 고통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거짓 참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 먼 지방으로 추방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백성이 받은 모든 고통과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갑절이나 보응하실 것이다. 배도한 교회의 상징인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계 18:5, 6)고 말씀하신다” (실물 178p).

## 2. 단순한 믿음의 공언에 대하여 2:14~26

### (1)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함 2:14~20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단순히 공허한 신앙고백만을 하면 마치 그 고백이 자기를 구원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한다. 사람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매우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을 조화시켜야 하는가이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그의 서신에서 마치 이와는 정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3:28)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으나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바울은 사람이 복음의 신앙을 받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복종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야고보는 사람이 복음의 신앙을 받은 후에 모세의 율법을 복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복음의 신앙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으며 야고보는 애써 복음을 소유했으나 복음을 얻은 자로서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과 결별하기 위하여 복음을 구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도외시하고 율법만을 구하는 자들이나 모두 잘못이다. 또 바울이 말하는 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조금 다르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야고보는 “네 행실로 네 믿음을 보이라” 고 말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을 말한다.**

“**믿음**” (헬, 피스티스, pistis): ‘확신’ , “신뢰” (히 11:1).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고보는 선한 “행실들” 을 낳지 않는 “믿음” 은 무가치하다고 주장한다. 참된 믿음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행실들” 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며 단지 개인적인 고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 을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경건” 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

“**행함**” : 1장과 2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제 믿음을 빙자하여 “참된 경건” 의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자들과 직접 맞선다. 바울의 저술과 마찬가지로(롬 2:6~10)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에 믿음과 행함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함은 회심한 생애가 만들어 내는 결과, 곧 믿음으로 동기부여 되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사도는 여기서 “참된 경건” 의 실제적 의무들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한다. 아마도 어떤 교인들은(2:1~13) 사랑의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함으로 그들이 부자들을 중시한 것을 변명하고 있었고 다른 교인들은(2:14~26) “믿음” 을 가졌다고 호소함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몸에 밴 선한 행실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참된 믿음 없이는 선한 행실도 결코 있을 수 없다(롬 3:28).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는 것과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주의 모든 백성은 전도자여야만 한다.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순전한 삶에 의해서 그리고 강단에서가 아니라 농장과 공장에서 시장에서 뱃길에서

거리에서.

아텐의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 사람의 건축가가 지원을 한 일이었다.

한 건축가는 청중들에게 건축의 다양한 양식에 대해 유창하게 열변을 토했고, 그들에게 그 성전이 어떤 식으로 건축될 것인가를 설명했다.

다른 건축가는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려왔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그 성전의 건축을 맡게 되었다.

**복음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음에 관해 말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그런즉 복음을 전파하되, 로마에서나 런던에서나 사치스럽게 꾸며진 대리석 강단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비천한 자리에서 먼저 전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네 것이다” 고 말한다. 받는 자 편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생각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품성과 뜻의 표현이 되는 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일치하는 성결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교리, 공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 2:14~24). (대쟁투 472p).

“그대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사도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을 권고하였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형제여, 그대의 선한 욕구가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대의 동정과 사랑의 진실성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대는 위에 언급된 것들을 얼마나 자주 문자적으로 실행하였는가?

…그대의 본성은 바뀌어야 한다. 전 존재가 변화를 입어야 한다. 그대는 말로는 진리를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리하지 않는다. 그대는 주님을 조금 사랑하지만 재물은 많이 사랑한다. 만일 주인께서 현재 그대의 상황에서 그대를 보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가? 무슨 즐거움이 언급된 것인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앞에 놓인 즐거움은 그의 영광과 명예와 부와 생명을 희생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때에 그분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2증언 685)

##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제 신자들의 믿음이 참인지를 자주 시험하는 일상적인 상황을 인용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행복을 비는 좋은 마음들이 오직 행해짐으로써만 참되다고 내보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없는 참된 것으로 입증될 수 없다. 행함의 결실을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마음의 작용을 조절하는 산 원칙이 없는, 단지 명목상의 믿음일 뿐이다(롬 2:13; 고전 13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교리들이 참되다는 단순한 지적인 확신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지식으로는 확신이 있지만, 마음은 차갑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인 확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에서 습관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믿음은 무익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런 생애 자체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런 죽은 믿음은 그 주인을 구원할 수도 없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살아있는 지체에 해당하는 외양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시체처럼 생명력은 없다. 죽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일관성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복음의 참된 해석** —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기심 없는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만 복음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무식한 자는 계몽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어야 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

다.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말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 …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대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 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리뷰 앤 헤랄드 1902. 3. 4)

“우리가 순종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침람(僭濫)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엡 2:8).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 (요 15:10)한다고 하셨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저 안에 거한다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3, 6).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始祖)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不滅)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61p).

“나는, 어느 면에서 나의 남편의 경우가 유쾌하게 되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았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이르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믿음과 일치되게 활동하기 전에 완전해진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겠노라고 말했을 것 같으면, 그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고 변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고 그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주실 것이다.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지탱되어야 한다. 산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난다.”

나는 남편이 그의 믿음과 일치되게 활동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소심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는 외관을 보고, 육체의 불유쾌한 감정을 본다. 천사는 말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질병을 저항하고,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의 빈약한 감정을 초월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의 자유를 주장해야 한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1증언 620p).

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이 교만해진 믿음과 행함으로 증거 되는 믿음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너희는 신앙고백을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지만 나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행위가 내가 어



편 사람인가를 나타내 준다.’ 바로 이 증거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할 근거가 될 것이다.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 절에서는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귀신들의 믿음과 같이 단순히 사변적이며 지식적인 것에 불과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신앙개조에 입술로만 동의하고 그것의 내용에 대하여 공론을 펴는 것으로 만족해한다면 그 정도는 귀신들도 하는 것이다. 또한 귀신들이 떠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신조가 지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귀신으로 남아 있다. **이제 믿음은 신학적으로 동의하면 그만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구원하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구별할 것이 있다. 신앙과는 전연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9)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意志)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거

듣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 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하나이다” (시 119:97)하고 부르짖게 된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롬 8:1)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63p).

## 20.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죽은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믿음이다. 야고보는 엄중한 경고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못한 믿음을 지닌 교인들에게 행함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 행함을 활기 있게 만든다는 사상을 강조한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함**-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회심시키시는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 지극히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대의 죄를 벗어 버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 그대를 구별하시도록 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비하는 날을 미루지 말라. 그대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 말라. 아무도 영원에 대한 안전을 우연에 맡겨 두지 말라. 그 문제가 위험스러운 불확실성 속에 방치되어 있게 말라. **나는 구원받은 이들 중에 있는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 중에 있는가? 나는 서게 될 것인가, 혹은 서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실 되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순결한 이들만이 그 날에 서게 될 것이다” (목사 443p).

## (2) 행함을 낳는 진정한 믿음의 실례들 2:21~26

##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급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그의 경험들 중 첫 번째 경우가 아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이삭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일어났으며,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함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제사에 앞서 “행함”에 착수했을 때, 그는 자기 믿음의 진실 됨을 온전히 증거 했다.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만으로 죄인이 의롭다고 칭해질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처럼(롬 4:1~25; 히 11:4~39) 야고보는 믿음을 칭의 속에 두고 의롭게 된 사람의 훌륭한 행동을 인용함으로 믿음의 생명력을 실례로 든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요 8:39)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창 26:5)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고 말한다. 그리고 것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일

5:3)고 말한다” (부조 153p).

## 22. “네가 보거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드리도록 이끈 그 믿음을 말하고 “행함”은 인간의 권위로 규정한 행위절차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

본 절은 행함에 대한 믿음의 관계에 관한 논증의 논리적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야고보는 행함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인 행함의 완전한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확고한 믿음으로 내적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시험에 승리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일들을 행하도록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 삶에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을 때 그의 행함은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흔히 선을 행하기만 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은 만큼 향상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실증된 새 진리를 받은 당신의 종들과 그들을 교제하게 하신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진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진리는 향상하는 것이다. 반면에 저희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289p).

## 23.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

### 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셨다” 는 헬라어 ‘로기조마이’ (logizomai)는 '간주하다'란 뜻이다(롬 4: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구속주의 약속을 즐겨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졌다(갈 3:6).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최고의 증거는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는 일에 나타나 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행위였다. 이 더 없는 진퇴양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부조가 지고의 신실함을 지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옳음이 입증되었다.

“응하였고” 는 온전히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창 15:1~5). 이 예언은 아들의 탄생과 가계의 보존에 달려 있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노년에 여전히 무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창 15:6).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원래의 약속을 좌절시킬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벗” 이란 칭호는 흔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적용했으며 오늘날 아랍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진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듯이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완전히 이르도록 성장시킨다. 이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다.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예증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함으로 야고보는 이제 14~23절의 논증에 대한 그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물론 그는 유대주의의 의식적 요구사항이라는 의미로 ‘율법의 행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기로 소원하고 선택하는 사람 중에 선한 행실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창 15:6에서 따온 인용은 이 개념을 입증해 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단순한 고백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수반되며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 받은 그 믿음의 생명력이 선한 행실로 입증된다. 만일 아무런 “행함” 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라는 바울의 견해와 ‘행위로’ 라는 야고보의 주장은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였다. 결국 바울은 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초점을 두었고, 또 야고보는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경건함을 대표한다면, 기생 라합은 부도덕함을 대표할 만하다.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나 라합은 갓 신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 개인의 안전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의 운명을 내맡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 야고

보는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과 가장 멸시받는 이방인이 똑같이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보여준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겼으며 정탐꾼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다. 야고보는 만일 그녀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었다면, 그녀의 믿음은 무익하고 죽은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즉 ‘호흡’ 을 의미하며 사도는 한 가지 사실-호흡이 없을 때 육체의 생명은 없다-로 논증을 끝내려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라합의 믿음 혹은 히 11장의 존경받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 중 어느 누구의 믿음도 죽은 것은 없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다. 즉 **믿음은 뿌리요, 행함은 열매이다.**

소위 믿음, 지적인 동의, 교리적 확신은 선한 행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는 살아 있는 믿음은 아니다.

[구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신념 이상의 것임]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시할 때 몇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떠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 하는 것이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바 된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 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리신다” (사인즈 1898, 5, 19).